

[1] 형제들의 식사 동안에 독서를 생략해서는 안되며, 우연히 책을 잡게 되는 사람이 책을 읽어서도 안된다. 한 주간 동안 (계속해서) 독서할 사람은 주일에 들어올 것이다. [2] 들어오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거만한 정신을 자기에게서 물리쳐 주시도록 미사와 영성체 후에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청할 것이다. [3] 그가 성당에서 “주여,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, 그러면 내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리이다” 하는 구절을 시작하거든 모든 이들이 세 번 외우고, [4] 그 다음 강복을 받고 독서(당번)에 들어갈 것이다.

[5] 완전한 침묵을 지켜 단지 독서자의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수군거림이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. [6] 먹고 마시는 데 필요 한 것들을 형제들이 서로 돌아가며 봉사하여 아무도 무엇을 청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다. [7] 그러나 만일 어떤 필요한 것이 있거든 말로써 하지 말고 어떤 신호 소리를 내어 청할 것이다. [8] 또한 아무도 독서 그 자체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감히 물어보지 말 것이니, 이는 (말할)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. [9] 그러나 장상은 훈화를 위하여 짧게 무엇을 말할 수 있다 .

[10] 주간 독서를 맡은 형제는 영성체 때문에 또 금식함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물을 탄 포도주를 마시고, [11] 그 후에 주방의 주간 당번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할 것이다.

[12] 형제들이 순서대로 읽거나 노래하지 말고,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형제들이 하도록 할 것이다.